



나의 생명 이야기

글_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whan@songang.ac.kr

남원 출신의 ‘촌놈’이라는 점도 닮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 사람이 모두 ‘생명’이라는 화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닮았다. 비록 똑같은 화두를 파헤치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나 미학적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의 뛰어난 과학자의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낸 자전적 수필집에 생명을 주제로 한 멋들어진 한국화가 간간이 끼어있는 멋진 화보집인 셈이다. 물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세상에 풀어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美化)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과학자의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담아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나의 생명 이야기』에는 두 사람의 성장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업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비판을 이겨내야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의 과학화를 위한 냉철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천 박사의 주장도 좋은 읽을거리가 된다.

동물 복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판이 그렇듯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비판만이 정당한 것이다. 특히 지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생명의 문제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와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공학자의 모든 연구 활동이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일원일 수밖에 없는 과학자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합리적인 합의를 근거로 하는 모든 규제를 따라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단순

우리처럼 서로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민족도 드물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과학계는 더욱 그렇다. 우리에게 특별히 존경할 ‘우리’ 과학자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애써 ‘과학기술자 명예의 전당’까지 만들었지만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위대한 과학자라고는 낯선 얼굴의 외국인 일색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공계를 꿈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을 지경이다.

그런 우리에게도 서광(瑞光)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온갖 재능을 두루 갖춘 두 과학자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1999년 한국 최초로 체세포 복제 젖소 ‘영롱이’를 탄생시켰고,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복제하여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한 생명공학자 황우석 박사와 개미 박사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동물 생태학자이며 사회 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가 바로 그들이다. 두 사람 모두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는 보기 어려운 빼어난 글 솜씨와 말 재주까지 갖추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인 셈이다.

1953년 동갑에, 1973년 서울대 동기들이고, 현재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두 사람에, 생명을 주제로 한 한국화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동갑 김병중 교수까지 합세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의 생명 이야기』이다. 세 사람이 모두 부여, 강릉,

히 중세에 유행하던 '신의 영역'을 앞세운 맹목적인 반대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 과학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알면 사랑한다'는 주장으로 널리 알려진 최 박사의 '사회의 과학화' 주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1만 년 문명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인류가 자연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한 역사는 불과 몇 백 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연이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현대의 과학은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다. 그런 과학이 '쉽고 재미있는 것'일 수는 없는 일이다. 모두가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학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은 어렵고 재미도 없는 것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의 과학화'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과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세 동갑내기 생명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림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꿈을 안겨주는 촉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㉔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살아있는 지구의 역사』 리처드 포티 지음, 이한음 옮김, 까치 (2005)
2. 『신기한 수학나라』 츠리 히로야스 지음, 홍수연 옮김, 해나무 (2005)
3. 『세계의 철새 어떻게 이동하는가』 폴 컬린저 지음, 신선숙 옮김, 다른세상 (2005)
4. 『초록담개』 마이클 조던 지음, 이한음 옮김, 지호 (2004)
5. 『자연과학을 모르는 역사가는 왜 근대를 말할 수 없는가』 존 루카스 지음, 이영석 옮김, 문화디자인 (2004)

세계사를 뒤흔든 발굴



이종호 지음, 인물과 사상사, 2004

지구상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뿌리와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가 버린

과거를 캐내는 일은 쉽지 않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오류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의 형태로 남아있는 역사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역시 필자의 제한된 정보와 주관(主觀)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 버린 유적이 가장 정확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역사 기록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다.

공학을 전공하고 문명과 과학, 그리고 역사를 넘나드는 다양한 관심을 담은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던 이종호 박사의 『세계사를 뒤흔든 발굴』은 그런 고대 유적의 발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꼭꼭 숨겨져 있던 고대 유적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만으로도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 유적을 찾아내기 위해 굳은 소신으로 노력했던 발굴가들의 활약도 감동적이다. 다만 우리의 유적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버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